

# 元曉의 經典觀

高原弘志  
(東亞大)

## 目 次

1. 敎相判釋
2. 慧遠 吉藏 智嚴 基의 敎相判釋
3. 元曉의 敎相判釋
4. 元曉의 經典觀
5. 結 論

### 1. 敎相判釋

敎相判釋은 敎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佛敎經典이나 論의 高低 優劣을 判定하면서 그 性格의 相違를 밝히는 것이다. 敎相判釋은 인도에서도 보이지만 中國에서 특히 發達되었다. 中國에는 다양한 內容을 갖는 經論을 成立順序나 相互關連성과 關係없이 또 無秩序하게 가져와서 翻譯하였기 때문에, 中國佛敎者들은 그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依據로 하는 佛典을 골라 내어야 했고, 그 때문에 敎相判釋을 必要로 했던 것이다.

元曉(617-686) 當時까지의 代表的인 敎判으로는 鳩摩羅什이나 菩提流支의 一音敎, 成實宗 혹은 涅槃宗의 慧觀의 漸頓五時, 曇無讖의 半滿二敎, 地論宗 慧光의 三敎(漸頓圓) 四宗(因緣宗·假名宗·誑相宗·常宗), 慧遠의 二藏(聲聞藏·菩薩藏) 四宗(立性宗·破性宗·破相宗·顯實宗), 天台宗 智顗의 四敎(三藏敎·通敎·別敎·圓敎), 三論宗 吉藏의 二藏(聲聞藏·菩薩藏) 三種法論(根本法論·枝末法輪·攝末歸本法論), 華嚴宗 智嚴의 三敎(漸頓圓) 四敎(小乘敎·三乘始敎·三乘終敎·一乘), 共不共二敎, 同別二敎, 法相宗 基의 三敎(多說有宗·多說空宗·非空有宗), 八宗(我法俱有·有法無我·法無法無去來·現通假實·欲妄眞實·諸法但名·勝義皆空·應理圓實)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敎判 가운데서 地論宗 慧遠의 二藏 四宗과 三論宗 吉藏의 二藏은 모든 大乘佛典에는 優劣이 없다고 하는 說이다. 그 외는 모든 大乘佛典에는 優劣이 있고 段階의으로 位置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 2. 慧遠 吉藏 智儼 其의 敎相判釋

다음에 元曉와 關係가 깊은 慧遠(523-592), 吉藏(549-623), 智儼(602-668), 基(632-682)의 敎判을 簡單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地論宗의 慧遠은 大乘義章 衆經教迹義에서 佛敎의 出世間의 聖敎를 聲聞藏과 菩薩藏으로 나누어 聲聞藏을 小乘·半敎라 하고, 또 菩薩藏을 大乘·滿敎라고도 한다. 그래서 大乘經에서는 華嚴經이나 法華經이 三昧를 宗趣로 하고, 般若經이 智慧를 宗趣로 하고, 涅槃經이 佛의 圓寂妙果를 宗趣로 하는 것과 같이 宗趣는 각각 다르지만 그것들이 설명하는 內容은 모두가 大乘緣起行德이며 모두가 究竟의義이고, 大乘經典의 優劣은 段階의인 位置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한다.<sup>1)</sup>

大乘義章 二諦義에서는 立性宗(因緣宗)·破性宗(假名宗)·破相宗(不眞宗)·顯實宗(眞宗)의 四宗을 세우고 있다. 立性宗은 모든 法, 즉 存在에 각각 自性이 있다고 하는 說이며, 阿毘曇 즉 俱舍論이나 阿毘曇心論 등이고 小乘中淺이다. 破性宗은 모든 法이 無自性이라고 하는 成實論의 說이고, 小乘中深이다. 破相宗은 모든 法의 自性を 否定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法의 相도 또 虛假이라고 否定하는 說이고 大乘中淺이다. 顯實宗은 모든 法이 如來藏을 所依로 하며, 眞性緣起에 의하여 成立된 것을 밝히는 說이고 大乘中深이다. 小乘의 두 宗은 같은 阿舍經에 의거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다른 說을 세워서 두 宗으로 分離된 것이다. 그러나 大乘의 두 宗의 경우에는 모든 經論 가운데에 두 가지의 宗이 포함되는 것이고, 經論사이에 異執이나 諍論은 없다. 즉 勝鬘經의 如來藏에 空如來藏과 不空如來藏의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이 모든 大乘經典에는 두 가지의 宗이 함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經論에 淺深의 차이는 없고 모두 法界緣起法門을 밝히며 眞性緣起에 의한 總行을 설명한다. 다만 行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宗들은 다르지만 歸一하는 바는 같다.<sup>2)</sup>

1) 大正藏 44, 466c-467a.

2) 大正藏 44, 483a-b.

慧遠은 그렇게 大乘과 小乘을 區別하고, 小乘에서는 見解의 相異에 의하여 對立이 나오지만 大乘에서는 經論사이에 靜論은 없고 모두가 眞性緣起에 의하여 成立되어 있다고 한다. 元曉의 經典觀을 究明할 경우에 이 眞性緣起의 說에 注意해야 한다. 眞性이라는 것은 佛性·如來藏·阿梨耶識과 同意語이고, 大乘起信論·楞伽經·勝鬘經에 의거하여 세운 것이다.

三輪宗 吉藏의 敎判에 관하여는 平井俊榮 「中國般若思想史研究」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설명한다.

吉藏은 經論을 大乘과 小乘으로 區別하며 大乘經論을 菩薩藏·大乘藏 혹은 滿字라고 하고, 小乘經論을 聲聞藏·小乘藏 혹은 半字라고 한다. 그리고 經論에는 大乘과 小乘의 區別이 있지만 그 以外 區分이 없다고 한다. 특히 大乘經典에서는 趣入方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經典에 相異가 있지만 모든 經典이 밝히려 하는 理도 敎도 같기 때문에 大乘經典에 價值的인 優劣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立場에서 있다.<sup>3)</sup> 예를 들면 般若經도 法華經도 涅槃經도 모두 無所得空 佛性 一乘을 설명하기 때문에 價值的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지만, 般若經은 無所得空을 主眼으로 하며 佛性 一乘을 傍義로 하고, 法華經은 一乘을 主眼으로 하며 無所得空 佛性을 傍義로 하고, 涅槃經은 佛性을 主眼으로 하며 無所得空 一乘을 傍義로 하기 때문에 각각 經典 사이에 相違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sup>4)</sup> 또한 正因佛性是 中道이고, 一乘의 體는 中道이고, 涅槃의 體는 中道라고 설명한다.<sup>5)</sup> 吉藏은 中道를 佛敎의 根本原理로 하며 大乘佛敎의 敎說은 中道에서 展開된다고 한다.

華嚴宗 智嚴의 敎判은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의 研究」에서 智嚴의 華嚴經觀으로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설명한다.

智嚴에는 漸頓圓, 一乘·三乘·小乘, 一乘·三乘終經·三乘始敎·小乘敎, 小乘·初敎·終敎·頓敎·一乘, 共不共敎, 同別敎 등의 敎判 혹은 敎判에 준한 것이 있고 智嚴의 敎判은 이 順序로 展開되었다고 보인다. 처음의 漸頓圓의 三敎敎判은 玄奘이 新譯佛典을 中國에 가져오기 전에 저술된 搜玄記에 있고, 地論宗 慧光의 三敎敎判에 의거한 것이다. 이 敎判에서 華嚴經은 頓

3) 大乘玄論 二智義 大正藏 45, 57a, 法華玄論 大正藏 34, 382c, 淨名玄論 大正藏 38, 900c.

4) 大乘玄論 二智義 大正藏 45, 65c, 敎迹義 大正藏 45, 63c.

5) 大乘玄論 一乘義 大正藏 45, 42b, 涅槃義 大正藏 45, 46b.

圓二教에 포함되지만 頓圓二教은 漸教에 對하여 絶對인 優位에 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華嚴經도 다른 經典에 對하여 絶對인 優位에 서는 것이 되지 않는다. 一乘 三乘終教 三乘始教 小乘敎의 四敎敎判 以下の 敎判은 玄奘의 新譯成立 以後에 저술된 五十要問答이나 孔目章에서 보이는 것이다. 智嚴은 五姓各別說을 설명하는 瑜伽師地論이나 菩薩地持經 또한 成唯識論의 說이 三乘始教에 相當한다고 하고, 一切成佛說을 설명하는 楞嚴經의 說이 三乘終教에, 華嚴經이 一乘敎에 相當한다고 한다.<sup>6)</sup> 共不共敎判에 서는 華嚴經만이 不共敎로 되며 다른 大乘經典들은 共敎에 相當된다고 한다.<sup>7)</sup>

이것과 같이 智嚴은 初期에서는 華嚴經의 優位性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玄奘의 新譯經典의 成立을 轉機로 하고 다른 大乘經典들에 對한 華嚴經의 優位性을 강조하며 玄奘등의 法相宗이 所依로 하는 唯識論書는 大乘始敎로 하며 大乘佛敎 가운데서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主張하기에 이른 것이다.

法相宗 基는 解深密經의 說에 의거하는 三敎와 八宗의 敎判을 세운다.<sup>8)</sup> 三敎敎判은 多說有宗(初時敎), 多說空宗(第二時敎), 非空有宗(第三時敎)이다. 多說有宗은 阿含經이나 小乘敎義에 相當하며 多說空宗이라는 것은 空을 설명하는 般若經이나 中論 百論 十二門論의 說이고, 非空有宗은 非空非有的 中道를 설명하는 華嚴經 解深密經 法華經 등의 經典과 無著 등의 唯識論著가 그것에 相當한다. 이 三敎가운데 最後의 非空有宗만이 了義이며 다른 三敎는 不了義라고 한다.

### 3. 元曉의 敎相判釋

華嚴宗 第三祖 法藏의 探玄記는 元曉가 華嚴經疏에서 三乘別敎·三乘通敎·一乘分敎·一乘滿敎의 四敎敎判을 세웠다고 설명한다.<sup>9)</sup> 元曉의 華嚴經疏는 본래 열권이었다고 하지만 現存하는 것은 第3卷 뿐이고, 이 敎判이 어떤 內容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原書에서 볼 수 없다. 法藏의 설명에 의하면 三乘別敎는 四諦나 十二因緣을 설명하는 阿含經을 가리키며 三乘通敎는

6) 五十要問答 業生作佛義 十樹林後釋 大正藏 45, 419c.

7) 五十要問答 一乘分齊義 大正藏 45, 522b, 諸經部類義別義 大正藏 45, 523b.

8) 妙法蓮華經玄贊 大正藏 34, 657a.

9) 探玄記 大正藏 35, 111a.

無所得空을 설명하는 般若經이나 法相唯識說의 依據인 解深密經을 가리키며 一乘分教는 律部에 속하여 菩薩의 階梯의인 修道를 설명하는 菩薩瓔珞本業經과 梵網經을 가리키며 一乘滿經은 普賢教를 설명하는 華嚴經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三乘通教에서 一乘滿教까지가 大乘에 속하며, 그 가운데서 空觀說과 法相唯識說이 大乘 가운데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고 華嚴經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澄觀은 華嚴經疏 가운데서 元曉 자신은 이 四教敎判을 乘門의 相異에 의하여 세운 것이고 絶對的인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0)</sup> 現存하는 元曉의 저작을 보면, 元曉는 經論의 優劣을 固定的으로 인정하는 것을 否定하기 때문에 探玄記의 記述은 元曉의 絶對的인 說로 할 수 없고, 한 觀點에 의한 相對的인 價値가 있을 뿐이다.

元曉는 諸師의 敎判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楞嚴經宗要 明敎迹門에서 成實宗 劉虬의 頓漸五時敎判과 地論宗 慧遠의 四宗敎判을 들고 있다. 劉虬는 華嚴宗을 頓敎로 般若經을 第三時로 法華經을 第四時로 楞嚴經을 第五時로 하며, 五時 가운데서는 第五時 楞嚴經만이 了義敎라고 한다. 四宗敎判에서는 이 大乘經典들은 了義經이라고 한다. 이 說들에 대하여 元曉는 佛意는 深遠無限하며 凡夫도 聖人도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五時敎判이나 四宗敎判은 바다물을 조가비로 낚는 것이나 하늘을 管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여 敎判에 대하여 批判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또한 大慈度經宗要 判敎門에서는 아마 慧觀의 說이라고 추측되는 頓漸五時敎判과 解深密經에 의하는 法相宗의 三種法輪說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의 敎判에서는 般若經이 第二時 혹은 第二法輪에 속하기 때문에 不了義經이라고 하지만, 元曉는 이 두 가지의 說을 批判하며 般若經은 華嚴經과 같이 無上究竟了義라고 한다.

또한 法華經宗要에서는 解深密經을 眞了義로 하는 法相宗의 有相·無相·無相無上의 三法輪과 吉藏의 法華遊意에 나타나는 根本·枝末·攝末歸本의 三種法輪의 敎判을 들고 있다. 앞의 三種法輪은 法華經을 第二法輪이며 不了義이라고 하고, 뒤의 三種法輪은 法華經을 第三法輪究竟了義라 한다. 元曉는 이 두 가지의 說에 대하여 前者는 좁고 짧다고 하고, 後者는

10) 澄觀 華嚴經疏 大正藏 35, 510a.

넓고 길다고 하며 일단 後者의 說을 지지하지만 後者의 說도 완전히 肯定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元曉는 諸師의 敎判에 대하여만 批判的이었던 것이 아니고 敎判을 세우는 것에도 批判的인 것이다.

#### 4. 元曉의 經典觀

元曉는 涅槃經宗要·法華經宗要·大慈度經宗要·晉譯華嚴經疏序·解深密經疏序에서 般若經·法華經·華嚴經·解深密經이 了義經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 大乘經典들은 價値的인 優劣이 없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經典들은 佛敎의 完전한 道理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되는 內容 모두가 眞理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解深密經에서는 聲聞緣覺菩薩은 모두 妙清淨道이며 究竟清淨如라고 설명하는데 이 說은 이 경전의 經宗이고 이 점에서 解深密經은 了義經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解深密經의 一向趣寂聲聞의 說은 方便不了義說이라고 한다. 또한 法華經은 一乘을 설명하기 때문에 了義經이지만 또한 不了義說도 설명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元曉의 經典觀은 慧遠의 한 經典 가운데 眞宗과 不眞宗이 둘 다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說과 共通性이 있는 것이다.

元曉는 起信論疏 가운데서 大乘法이 一心이며, 涅槃經·法華經·華嚴經·般若經·大集經·密敎經典 등 모든 如來의 所說의 根本으로 되는 것은 起信論의 一心二門이라고 한다.<sup>11)</sup>

涅槃經宗要 佛性義 出體門에서는 諸師의 佛性義를 든다. 愛法師는 當有佛果를 佛性으로 하고, 旻法師는 現有衆生을 佛性으로 하고, 靈法師는 衆生의 心을 佛性으로 하고, 梁武蕭焉天子는 心神을 佛性으로 하고, 玄奘 등 新師는 阿賴耶識을 佛性으로 하고, 眞諦는 阿摩羅識을 佛性으로 한다. 元曉는 佛性이 一心이며 그것은 不染而染門(隨染門)의 報佛性和 染而不染門(性淨門)의 法佛性의 二門으로 된다고 하고, 이 여섯 가지의 說 가운데서 앞의 다섯 說은 隨染門의 報佛性에 상당하고, 第6說은 性淨門의 法佛性에 상당된다고 한다.

또한 涅槃經宗要 佛性義 會通門에서는 佛性을 性淨門의 常住佛性, 隨染

11) 起信論疏 大正藏 44, 202b, 204b, 205a, 起信論別記 大正藏 44, 226b.

門의 無常佛性, 諸佛의 現果佛性, 衆生의 當果佛性, 非因非果인 一心의 다섯 가지로 分類한다. 涅槃經에는 佛性이 다섯 가지의 형으로 설명되며 그것들은 一心이 展開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第一性淨門의 常住佛性은 般若經·法華經·維摩經 등에서 설명되는 第一義諦·一乘·眞解脫 등과 같다고도 한다. 元曉는 모든 大乘經典의 所說을 一心의 展開로서 취하며 諸師의 說은 一心의 一端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즉 大乘佛典의 根本, 또 大乘佛敎에 관한 諸說의 根本은 起信論의 一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 5. 結 論

玄奘의 新譯佛典은 中國佛敎에 大變化를 일으켰다. 智嚴·基·元曉는 바로 그 時代에 活躍했던 사람들이다. 基는 玄奘의 門으로 들어가, 法相宗의 祖가 되었고, 智嚴과 元曉는 新譯佛敎의 敎義를 도입하고서 그 以前부터 있었던 中國佛敎를 展開해 갔다.

智嚴과 元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共通點 또한 關係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新譯佛典이 中國으로 傳來되었던 時代에 살았으면서도 玄奘의 敎學을 全面的으로 贊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 사람이 꼭 같이 地論宗敎學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이다. 智嚴은 地論宗과 攝論宗을 공부했다. 그의 敎學에서는 慧光과 慧遠의 影響을 인정할 수 있다. 元曉는 地論宗이 重視한 起信論을 自己敎學의 中心으로 하고 있다. 玄奘이 舊譯佛典 가운데에서도 특히 起信論을 강하게 批判하며, 排斥하려고 하였지마는, 元曉는 起信論을 重要視했던 것이다. 또한 元曉의 一心思想에는 慧遠의 眞性緣起思想의 影響이 보인다. 세째는 元曉가 智嚴에게서 敎學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는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에 보인다. 無量壽經宗要에 있는 十念의 解釋은, 智嚴의 孔目章 壽命品內 閻往生義의 十念解釋을 繼承한 것이다.<sup>12)</sup> 또 하나는 涅槃經宗要에 보인다. 元曉는 一心을 不染而染門과 染而不染門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新譯佛敎의 阿賴耶識은 不染而染門에 속하고, 眞諦의 阿摩羅識은 染而不染門에 속한다고 하였다. 智嚴은 孔目章 明難品初立唯識章에서 如來藏을 不染而染門과 染而不染門으로 나누어서, 新譯의 阿賴耶識은 不染而染門에 속한다고 하였다.<sup>13)</sup> 元曉의

12) 松林弘之, 「朝鮮淨土敎의 研究」(龍谷大學佛敎文化研究所紀要 第六集).

阿賴耶識의 解釋에서는 智儼의 解釋의 影響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智儼과 元曉 사이에는 共通點이 있으며, 元曉가 智儼에서 影響을 받은 것을 指摘할 수 있지만, 經典觀에 있어서는 兩者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智儼은 華嚴經을 모든 經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法相宗의 所依인 成唯識論이나 瑜伽師地論을 大乘佛敎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놓았다. 한편 元曉는, 모든 大乘經典에 優劣을 세우는 것에는 批判的이었으며, 모든 大乘經典은 了義經이라고 하였다. 또한 大乘經典의 所說의 根本義는 一心이고, 大乘經典의 所說은 一心을 展開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元曉가 모든 大乘經典에는 優劣이 없으며, 모두 了義經이라고 하였던 것은 元曉의 一心思想에 의한 것이다.

智儼과 元曉의 經典觀을 比較하면, 智儼은 舊譯時代의 佛敎敎義의 傳統을 繼承하면서도 自己의 敎學의 獨自性을 강화시켜 나간 것에 比하여, 元曉는 새로운 敎學을 展開하면서도 舊譯時代의 佛敎 특히 地論宗의 傳統에 忠實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 孔目章 大正藏 45, 543b, 544a, 智儼의 阿賴耶識觀에 관하여는 織田顯祐「智儼의 阿賴耶識觀」(佛敎學세미나 第36號)를 參照.